

## 영아의 비언어적 의사소통과 어머니의 언어적 행동 및 영아 어휘력 간의 관계\*

The Relationships among Infants' Nonverbal Communication,  
Maternal Verbal Behaviors and the Infants' Acquisition of Vocabulary\*

이윤선(Yun Seon Lee)<sup>1)</sup>

김명순(Myoung Soon Kim)<sup>2)</sup>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relationship among infants' nonverbal communication, maternal verbal behaviors and the infants' acquisition of vocabulary. The subjects were 93 pairs of 10 to 18 months old infants and their mothers residing in the Seoul and GyeongGi-Do area. The results were as follows : (1) In terms of the infants' nonverbal communicative means, it appeared that the group of 16~18 month olds utilized more gesture and vocalization. As regards the infants' nonverbal communicative functions in terms of social behavior and joint attention, the group of 16~18 month olds was found to perform more of the behaviors from this category than the other groups.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maternal verbal behavior among the different age groups. (2) Among the infants' nonverbal communicative means, gesture and vocalization, there appeared to be a significant relationship between vocalization and the infants' acquisition of vocabulary. In addition, there was an important relationship between the high usage of infants' nonverbal communicative functions with behavior regulation and the high usage of joint attention and the successful acquisition of vocabulary

\* 본 논문은 2012년도 연세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의 일부임.

\* 본 논문은 2012년도 한국아동학회 춘계 학술대회 포스터 발표 논문임.

<sup>1)</sup> 연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강사

<sup>2)</sup> 연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교수

**Corresponding Author** : Yun Seon Lee, Child and Family Studies, Yonsei University, 134 Shinchondong,  
Seodaemun-gu, Seoul 120-749, Korea  
E-mail : pica71@naver.com

© Copyright 2013, The Korean Society of Child Studies. All Rights Reserved.

among infants. (3) Social play, which is a maternal verbal behavior categorized as one of the strategies for getting infants' attention, was significantly related to the acquisition of infants' vocabulary. (4) When mothers used more imitating sounds and mimetic words, requests for information, descriptions, conventional social expressions, and imitation to enhance responsiveness, infants were found to have acquired a larger vocabulary.

**Key Words** : 영아의 비언어적 의사소통(infant's nonverbal communication), 어머니의 언어적 행동(maternal verbal behavior), 영아의 어휘력(infant's vocabulary)

## I. 서 론

아기들이 태어나서 1년이 되는 시기는 어휘 발달에 있어서 중요하고 경이로운 일이 발생한다. 바로 첫 단어를 산출하기 때문이다. 특히 첫 단어를 산출 한 이후 18개월 전후에는 단어 급증(word spurt), 단어 폭발(word explosion)이 일어나게 된다(Benedict, 1979; Bloom, 1973; Nelson, 1973). 이와 같은 영아기의 급속한 어휘 발달에 관심이 집중되면서 어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들을 규명하고자 하는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다. 이러한 요인들 중 하나로 주목되고 있는 것이 영아의 비언어적 의사소통의 역할이다.

영아의 어휘발달과 관련된 비언어적 의사소통 수단에 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영아의 몸짓이 영아의 어휘발달을 촉진한다는 연구(Acredolo & Goodwyn, 1985; Bates, Thal, Whitesell, Fenson, & Oakes, 1989; Capirci, Iverson, Pizzuto, & Volterra, 1996; Goldin-Meadow & Morford, 1985; Goodwyn, Acredolo, & Brown, 2000)와 또 다른 수단인 발성이 영아의 어휘 발달에 관계가 있음을 살펴보는 연구(Bloom, 1995; Locke & Pearson, 1990; McCune, Vihman, Roug-Hellichius, Delery, & Gogate, 1996; Oller, Wieman, Doyle, & Ross,

1976; Schwartz, 1988; Stoel-Gammon, 1991; Vihman, Ferguson, & Elbert, 1986)들로 구분할 수 있다.

국내에서는 Kim과 Kim(2006)이 7개월에서 24개월까지 영아의 의사소통적 몸짓과 어휘 습득 간의 관계를 살펴 보았다. 최근 몸짓과 어휘 발달 간의 관계성을 살펴 본 Kwon과 Kim(2011)은 12~36개월의 청각장애 영아와 일반 영아를 대상으로 몸짓과 어휘 발달 간의 차이를 비교하기도 하였다. 영아의 발성과 어휘 습득 간 관계를 살펴 본 연구들을 보면 Lee(2009)가 13개월에서 24개월까지 영아의 발성과 어휘발달 간의 관계를 알아보았다. 또한 영아의 비언어적 의사소통의 기능과 어휘 발달에 관한 국내 연구도 이루어지고 있으나 (Kim & Kwak, 2010; Lee, 2009; Shin, 2006) 이들 연구들은 첫 단어가 나타나는 13개월 이상의 영아들을 대상으로 하였거나 대상 영아가 '말 늦은 영아(late-talker)'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Hong, 2007) 첫 단어가 산출되지 않은 12개월 미만의 영아와 아직 어휘가 급증하지 않는 18개월 이하의 영아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필요하다.

영아 어휘력에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중요한 요인으로 어머니의 언어적 행동을 들 수 있다. 어머니와 영아 간에는 영아의 언어 발달을 촉진할

수 있는 최적(optimal)의 상호작용이 이루어질 수 있는데, 이를 설명하는 대표적인 두 가지가 ‘사회적 인접성(social contingency)’과 ‘공동주의(joint attention)’다(Dunham & Dunham, 1995). 먼저 사회적 인접성과 영아의 어휘력 간의 관계를 살펴 보면 영아가 주의를 기울여 보고 있는 대상이나 현재 하고 있는 활동에 대하여 어머니가 그 대상이나 활동과 관련된 말(contingent comments)을 많이 할 경우, 영아가 12개월, 18개월, 30개월이 되었을 때 이들의 이해 어휘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Rollins, 2003). Dunham과 Dunham(1990)은 인접성(contingency)을 영아의 사회적 행동과 어머니 반응 간에 일어나는 근접하고 연속적인 상호작용을 의미한다고 보았다. 이러한 인접성과 유사한 개념으로 어머니의 반응성(responsiveness)을 들 수 있는데 이는 어머니 상호작용 행동의 질(quality)로 분석되고 있으며, 반응성 역시 영아의 언어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Baumwell, Tamis-LeMonda Marc, & Catherine, 1997; Nicely, Tamis-LeMonda, & Bornstein, 1999; Tamis-LeMonda, Bornstein, & Baumwell, 2001). 이 연구들에서 정의한 반응성은 영아의 사회적 행동과 어머니의 반응 간에 근접하고 연속적으로 나타나는 반응의 인접(contiguity of response)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어머니의 언어적 행동을 세부적인 하위 유형에 따라 나누어 분석하면 영아 어휘력 간의 관계가 달리 나타날 수 있다. 즉 어머니의 언어적 행동이 반응적이더라도 질문, 모방, 명명, 묘사, 승인 등의 언어적 행동의 하위 유형에 따라 영아의 어휘력과 부적 상관이나 나타나거나(Paavola, Kunnari, Moilanen, & Lehtihalmes, 2005) 또는 정적 상관이 나타나기도 하였다(Shin, 2006).

다음으로 살펴 볼 공동주의는 어머니와 영아의 공통 주제와 사물에 대한 공유 즉 하나의 실제

에 대해서 같이 집중하는 것으로 언어발달에 매우 중요한 것으로 강조되고 있다(Bruner, 1975b; Lewis & Freedle, 1973; Ryan, 1974; Tomasello & Todd, 1983). 공동주의를 위해 어머니가 사용하는 전략은 영아가 주의를 보이고 있는 대상에 대해 어머니가 주의를 쫓아가는 것(following), 영아가 현재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대상에게 주의를 기울이도록 요구(require)하거나 주의를 전환(switch)하도록 하는 것이 포함된다(Dunham & Dunham, 1995). 공동주의를 하기 위해서 어머니는 어떠한 대상이나 상황으로 영아의 주의를 이끌고 요구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러한 어머니의 전략에 대해서는 상이한 결과들을 보고 하고 있다. 영아의 어휘력 발달을 촉진할 수 있다(Karrass *et al.*, 2002; Ruddy & Bornstein, 1982; Tamis-Le Monda & Bornstein, 1989)는 연구들과 주의를 끄는 전략은 영아의 어휘 발달과는 관련이 없거나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이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Bornstein & Tamis-LeMonda, 1990; Laakso *et al.*, 1999; Tomasello & Farrar, 1986)는 것이다. 이처럼 연구 결과들이 서로 불일치하는 이유는 어머니가 영아에게 하는 주의 격려와 주의를 요구하는 행동에 대해 서로 다른 조작적 정의를 내림으로써 영아의 어휘 발달을 다르게 예측하게 된 결과에서 기인한다(Pine, 1992). 따라서 어머니가 영아에게 하는 주의 격려는 영아의 신체적 행동을 제한하거나 이끌려고 하는 행동적 지시(behavioural directives)와 영아의 주의 초점을 바꾸거나 지도하기 위한 주의를 끄는 지시(attentional directives)로 구분을 하여(Karrass, 2002) 살펴 볼 필요가 있다.

국내의 연구에서는 13~24개월 영아 어머니가 실험실과 가정에서 놀이할 때 영아의 주의를 끌어 새로운 활동을 시작하려는 주의환기 언어를 많이 사용할수록 영아의 어휘력이 낮았다는

결과(Lee, Chang, Kwak, Seong & Sim, 2005)와 반대로 영아와 어머니의 책보기 맥락에서 어머니의 주의환기 언어가 많을수록 영아의 어휘발달이 촉진되었다는 상반된 결과로 나타났다(Lee, Lee & Chang, 2004). 이와 같은 상반된 결과에 대한 이유를 추론해 보면 주의환기 언어에 포함되어 있는 어머니의 다양한 언어 유형이 구분되지 않고 분석된 점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의사소통의 의도와 기능에서 어머니의 언어적 행동 중 질문하기는 영아의 언어발달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Lee, 2006; Park & Jo, 2008) 주의환기라는 한 가지 범주 안에서 세부적인 어머니 행동을 분리하여 분석해 볼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또 다른 가능성은 영아와 어머니가 상호작용하는 각 맥락 간의 차이로 해석해 볼 수 있다. 즉 어머니와 영아의 상호작용을 실험실에서 연구하는 경우는 가정에서 하는 경우와 차이가 있을 것이다(Brookhart & Hock, 1976; O'Brien, Johnson, & Anderson-Goetz, 1989; Ross, Kagan, Zelazo, & Kotelchuck, 1975). 특히 어머니의 언어적 행동은 가정 내의 일상 맥락과 놀이 맥락에서도 차이가 나타나(Flynn & Masur, 2007; Kim, 2000; Nelson, 1973; Turner & Masur, 2001) 어머니의 언어적 행동은 영아와 어머니가 속한 다양한 맥락을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첫 단어가 아직 산출되지 않았으나 비언어적 의사소통이 활발히 일어나는(Bates *et al.*, 1975; Wetherby & Prizant, 1989) 10개월부터 18개월 이하의 영아를 대상으로 영아의 비언어적 의사소통과 영아의 어휘력 간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그리고 영아의 어휘력과 중요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예측되는 어머니의 언어적 행동을 가정 내 일상과 놀이 맥락을 포함하여 관찰하여 분석하고자 하였다. 어머니의 언어적 행동은 주의환기 언어와

반응적 언어로 구분하였으며 주의환기 언어는 영아의 신체적 행동을 제한하거나 이끌려고 하는 행동적 지시는 포함하지 않았다. 분석 시 사회적 인접성 측면의 반응적 언어와 공동주의 측면의 주의환기 언어를 각 16개와 19개의 하위요인 별로 세분화하여 살펴봄으로써 영아의 어휘력과 관련이 있는 구체적인 어머니의 언어행동을 알아보려고 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영아를 자녀로 둔 어머니의 상호작용 기술 증진을 위한 교육자원 마련에 유용하게 적용될 수 있으며, 이들을 교육하는 전문가들을 위한 바람직한 언어적 상호작용 기술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해 줄 것이다.

이와 같은 연구 목적을 위해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연구문제 1> 월령집단에 따른 측정변인들의 일반적 경향은 어떠한가?
- <연구문제 2> 만 10~18개월 영아의 비언어적 의사소통은 영아의 어휘력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 <연구문제 3> 어머니의 언어적 행동 중 반응적 언어는 영아의 어휘력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 <연구문제 4> 어머니의 언어적 행동 중 주의환기 언어는 영아의 어휘력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 II. 연구 방법

### 1.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시와 수도권에 거주하는 10개월에서 18개월 영아와 이들의 어머니 93쌍이

었다. 본 연구대상 영아는 3개 월령집단으로 나누었는데 영아기의 어휘와 관련된 주요 발달지표가 12개월, 16개월, 18개월에 나타나기 때문이다(Pence & Justice, 2010). 10~12개월 영아 집단의 평균 월령은 11.15개월이었고 13~15개월 영아 평균월령은 14.13개월, 16~18개월 영아 평균 월령은 17개월이었다. 세 집단 별 대상 영아 수는 10~12개월 영아가 34명(36.6%), 13~15개월 영아가 31명(33.3%), 16~18개월 영아가 28명(30.1%)이었다. 성별 구성을 보면 전체 영아 중 남자는 46명(49.5%), 여자는 47명(50.5%)이었다. 어머니의 연령은 31~35세가 52.7%로 가장 많았으며 학력에서는 대졸이 58.1%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높게 나타난 학력은 전문대 졸업이 21.5%, 대학원 졸업이 15.1%였다. 어머니의 학력이 고졸인 경우는 어머니 4.3%로 나타나 본 연구 대상의 어머니 학력은 대체로 전문대 졸업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대상의 가계 평균 수입은 201만원~300만원이 33.3%로 가장 많았으며 301만원~400만원이 25.8%, 401만원~500만원이 15.1%, 501만원~700만원이 10.8%의 순으로 나타났다.

## 2. 연구 도구

### 1) 영아의 비언어적 의사소통

본 연구에서는 영아의 비언어적 의사소통을 측정하기 위해서 10~24개월 영아를 대상으로 Kim과 Lee(2007)의 연구에서 사용한 Wetherby와 Prizant(2003)의 Communication and Symbolic Behavior Scales(CSBS)의 분석 기준 중 단어를 제외한 의사소통 수단과 기능의 하위 항목들을 사용하였다. 영아의 비언어적 의사소통 수단과 기능은 영아와 어머니의 일상과 놀이 상황을 녹화한 동영상 자료를 1분 단위로 나누어 관찰한

다음 1분마다 나타난 수단과 기능의 빈도를 기록하였다. 최종 분석에서는 일상과 놀이 상황의 빈도를 합하여 사용하였다. 이에 대한 관찰자 간 신뢰도를 산출하기 위하여 아동학을 전공한 대학원생 1명과 본 연구자가 연구대상의 10%인 10쌍의 동영상 자료를 보고 산출한 자료로 적률상 관계수를 산출하였다. 그 결과 본 연구자와 관찰자 간의 신뢰도는  $r = .99$ 였다.

### 2) 어머니의 언어적 행동

어머니의 언어적 행동은 반응적 언어와 주의 환기 언어로 구분하여 살펴 보았다. 이는 Lee, Chang, Kwak, Seong과 Sim(2005)의 연구에서 영아와 어머니의 상호작용 순서를 나타내는 피드백과 주의환기로 분류한 것을 적용하되 본 연구에서는 주의환기 언어, 반응적 언어로 정의하였다. 구체적인 정의를 살펴보면, 주의환기 언어는 어머니가 먼저 시작하게 되는 언어로서 분명하게 영아의 주의를 끌어 새로운 활동을 시작하려는 의도를 나타내는 언어적 행동들이 포함된다. 반응적 언어는 영아가 시작한 행동, 주의에 따라 어머니의 언어가 3초 안에 인접하여 나타나는 언어적 행동으로 정의하였다. 어머니의 반응성에 대한 연구들(Baumwell *et al.*, 1997; Bornstein, M. H., Tamis LeMonda, C. S., Tal, J., Ludemann, P., Toda, S. Rahn, C. W., Pêcheux, M., Azuma, H., & Vardi, D, 1992; Tamis-LeMonda *et al.*, 2001)에서는 어머니의 반응이 영아가 사물이나 어머니를 보고 있거나 스트레스를 표현하는 발성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반면 영아의 스트레스가 나타나지 않는 발성에 대해 어머니의 반응이 늦어지는 것이 두드러짐을 발견하였다. 따라서 어머니 반응의 시작은 영아가 먼저 나타내는 행동의 시작 뒤에 5초 안에 나타나는 것으로 정의하여 살펴 보았다.

<Table 1> The categories of maternal verbal behaviors

하위 언어적 행동	조작적 정의
Yes / no questions about object	네 또는 아니오의 대답을 이끌어내는 질문하기. 또한 차례맡기(turn-taking) 대화 구조를 만들려는 시도가 나타나 이름을 사용하거나 어떤 것들에 대하여 설명이 포함된 질문하기 (이건 공이지? 이건 하얀 점이 있는 빨간 공이지?)
Yes / no questions about infants' intention	영아를 관찰한 후 영아의 의도, 관심, 행동에 대해 묻고 대화구조를 만들려는 시도하기 (이건 좋아? ~해서 싫었어? 갖고 싶어? 누르고 싶어?)
Naming objects and people	한 단어가 포함된 말을 하거나 설명 뒤에 단어로 말하기 (공. 그건 공이야)
Requests for information	성인이 갖고 있지 않는 정보를 요구하기 (다음에 뭐하고 싶어?)
Requests for clarification or confirmation	성인이 아동을 이해하거나 이해하지 못한 어떠한 것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 시도하기 (네가 잡으려는 것이 곰인형이지? 뭐라고 말했지?)
Test questions	특별한 체계를 만들기 위해 질문하기 (이건 뭐지? 멍멍이가 어떻게 짚을까? 어디갔지?)
Attention devices	영아의 주의를 끌기 위한 말하기 (봐! 여기에 있는 것 좀 봐)
Permission requests / suggestions	화자의 행동을 수용하기를 바라는 말이나 영아가 할 것에 대해 제안하기 (자동차 갖고 놀까? 이 책 볼까요?)
Asking / commands / warnings	영아의 신체적 행동을 제한하거나 지시하는 말로 완곡한 표현이거나 ‘~해주세요’라는 청유의 말하기 (엄마한테 공 던져. 조심해! 조심조심. 맘마 먹여봐요)
Tag	질문 뒤에 따라 하는 말이나 이름을 말하거나 어떠한 것을 묘사하기. 위의 네/아니오 질문의 기능과 유사하지만 상호작용을 더 유지하려는 것으로 나타남. (여기 아기 인형이 자네. 그치?)
Descriptions	즉각적인 상황에서 현재 나타난 어떤 사람 또는 영아의 행동, 활동, 느낌, 욕구나 의도 등이나 사물 또는 사건을 묘사하기 (너는 강아지를 만지고 있구나. 공이 튀고 있네. 입에 넣고 싶어)
Mand-models	특별한 체계를 요구하고 그리고 나서 모델을 제공하기. 화자인 어머니가 말하고 바로 대답하기 (이건 뭐지? 기린)
Displaced speech	현재가 아닌 과거에 있었거나 미래에 있을 사건에 대해 묘사하거나 질문하기. 단 영아의 바로 이전 행동과 개념적으로는 관련이 되며 영아의 경험과 연결하기 (어제 우리도 큰 트럭 봤었지. 너 수박 좋아하지?)
Conventional social expressions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관습적인 표현을 사용하거나 정중한 예절 보여주기 (고맙습니다. 미안해)
Social play	흥미있는 방식으로 영아와 상호작용하기 위한 어머니의 어머니의 놀이 시도(까꿍놀이, 소리내기, 노래부르기)와 가작화의 놀이 요소가 들어가 대상,사물,상황을 설명하기 (아기 배고프데, 아빠한테 전화왔어)
Onomatopoeia / mimetic word	사물이나 상황, 행동에 대한 의성어, 의태어를 사용하기 (칙칙폭폭. 슈. 부웅 붐 )
Imitations	영아의 이전 발성이나 말의 시도의 부분이나 전체를 즉각적이며 직접적으로 따라하기
Affirmatives	영아의 행동이나 이전의 말에 대해 동의하기 (그래. 그렇지. 옹지)
Negations / criticisms	영아의 이전 행동이나 말을 부정하는 말이나 영아의 행동에 대해 분명하게 부정적인 피드백을 주기 (안돼. 이건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너는 왜 그래. 바보야)

본 연구에서 정의한 어머니의 언어적 반응은 이러한 어머니의 반응성과 사회적 인접성을 동시에 고려하기 위하여 3초 안에 인접하여 나타나는 언어적 행동으로 정의하였다.

주의환기 언어와 반응적 언어 하위에는 언어적 행동이 각 16개와 19개로 분류하였으며 이는 Paavola, Kunnari, Moilanen과 Lehtihalmes(2005)의 어머니 언어적 행동의 하위요인별 범주를 사용하였다. 어머니 반응적 언어는 주의환기 언어 16개에서 모방(Imitations), 동의(Affirmatives), 부정/비난(Negations/criticisms)이 추가되었으며 이에 대한 조작적 정의는 Table 1과 같다. 관찰 분석 시에는 어머니와 영아의 모습이 담긴 일상과 놀이 맥락을 구분하여 어머니의 발화를 분석하였으며 어머니와 영아의 동영상 자료를 2번 반복하여 보면서 어머니의 주의환기 언어와 반응적 언어라는 2가지 차원을 분리하여 분석하였다. 녹화한 일상과 놀이 맥락의 동영상 자료는 1분 단위로 나누어 관찰한 다음 1분마다 나타난 어머니의 발화를 분석 기준에 따라 표기하였다.

어머니의 주의환기 언어에 대한 관찰자 간 신뢰도를 산출하기 위하여 아동학을 전공한 대학원 졸업생 1명과 본 연구자가 연구대상의 10%인 10쌍의 동영상 자료를 보고 산출한 자료로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그 결과 어머니의 주의환기 언어에서 관찰자 간의 신뢰도는  $r = .92$ 로 나타났고 반응적 언어에 대한 관찰자 간 신뢰도는  $r = .97$ 로 나타났다.

### 3) 영아의 어휘력

본 연구에서는 영아의 어휘발달 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Pae(2003)가 사용한 MCDI-K(The MacArthur Communicative Development Inventory-Korean)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어머니가 보

고하는 것으로 검사지에 기록된 단어에 대하여 영아가 정확히 말을 할 수 있거나 거의 유사하게 말할 수 있으면 '표현'에 체크하고 영아가 이야기하지는 못하지만 다른 사람이 검사지에 기록된 단어를 말했을 때 듣고 이해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이해'에 표시하도록 되어 있다.

### 3. 연구 절차 및 자료 분석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시와 수도권에 거주하는 10개월에서 18개월 영아와 이들의 어머니 93쌍이었다. 연구 대상의 어머니는 취업을 하지 않은 전업주부로서 영아의 양육을 전적으로 담당하고 있고 어린이집 등의 기관 경험이 없는 영아를 대상으로 하였다. 이는 어린이집에서의 집단 보육 경험과 그 안에서의 또래 경험이 영아의 어휘 발달에 다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제한하기 위해서였다. 연구 대상 선정을 위하여 서울시의 보육정보센터 중 육아지원 사업을 하는 센터를 중심으로 연구 대상 모집 공고문을 게재하여 모집을 하였고 육아와 관련된 인터넷 사이트와 지역별 광고신문에 공개모집을 하였다. 또한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에 있는 문화센터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기관의 협조를 구하여 연구 안내문을 공지하여 신청한 어머니들을 중심으로 비슷한 월령의 영아 어머니를 소개 받는 식의 눈덩이 표집(snowball sampling)으로 대상 모집이 이루어졌다.

본 조사에 앞서 놀이맥락에서 절차상의 어려움이나 분석 기준이 적합한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2011년 6월 둘째 주와 셋째 주에 걸쳐 예비조사를 실시하였고 2차 예비조사는 1차 예비조사의 보안점을 확인하고 일상맥락에서 제시할 일상 양육 과제(손씻기와 세수하기, 옷 갈아

입기, 기저귀 갈기 등)의 적절성을 조사하였다. 본조사는 연구 대상이 되는 어머니의 가정에 방문하여 일상맥락의 촬영을 먼저 하였고 놀이맥락은 검사자가 놀이매트에 장난감을 꺼내며 어머니에게 설명을 해 준 뒤 바로 녹화를 시작하였다. 촬영이 끝나면 어머니에게 영아 어휘력 검사지, 기본 가정 환경 조사 질문지에 응답하도록 한 후 수거하였다. 놀이맥락에서 전체 녹화가 이루어진 시간은 15~20분 정도였으며 놀이맥락의 분석은 놀이가 시작되는 앞부분을 제외하고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10분만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일상맥락 3분과 놀이맥락 10분의 동영상 촬영 자료는 모두 전사하였으며 영아의 의사소통 분석을 위해 일상과 놀이맥락 총 2회기, 어머니의 주의환기를 위한 언어 분석을 위한 2회기, 어머니의 반응적 언어 분석을 위한 2회기로 본 조사 대상 93명의 관찰 분석을 위해 사용된 회기는 총 558회기였다. 자료 분석 시 일상맥락과 놀이맥락에서 분석된 빈도는 합하여 분석되었다. 자료의 분석을 위해 SPSS WIN 18.0을 사용하였으며 연구문제에 따라 변인별

기술통계, 일원변량분석, 부분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 III. 결과 및 해석

#### 1. 월령집단에 따른 측정변인들의 일반적 경향

영아의 몸짓은 월령집단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몸짓과 발성의 조합, 발성은 월령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사후검증 결과 몸짓과 발성은 16~18개월 집단의 영아들이 10~12개월 집단의 영아들보다 유의하게 많이 사용하였고 발성에서는 13~15개월 집단의 영아들이 다른 두 월령 집단의 영아들보다 더 많이 표현하였다.

영아의 의사소통 기능 중 행동통제는 월령집단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사회적 행위, 주의환기는 월령집단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사후검증 결과 사회적 행위는 16~18개월 집단의 영아들이 10~12개월 집단

<Table 2> Results of ANOVA for infants' nonverbal communicative means according to the three age groups

Nonverbal communication	M(SD)				F	
	Total (N = 93)	10~12 month (N = 34)	13~15 month (N = 31)	16~18 month (N = 28)		
Means	Gestures	11.76(8.00)	10.59(7.39)	11.23(7.21)	13.79( 9.34)	1.34
	Gestures + Vocalizations	8.02(6.21)	6.38(6.52) <sub>a</sub>	7.68(6.42) <sub>ab</sub>	10.39( 4.93) <sub>b</sub>	3.45*
	Vocalizations	7.11(6.70)	5.53(4.02) <sub>a</sub>	10.74(9.08) <sub>b</sub>	5.00( 4.32) <sub>a</sub>	7.92***
Functions	Behavior regulation	8.28(5.98)	7.44(6.76)	8.10(5.62)	9.50( 5.36)	0.93
	Sociability of communicative functions	12.03(9.34)	7.44(7.14) <sub>a</sub>	12.35(8.22) <sub>ab</sub>	17.25(10.25) <sub>b</sub>	10.18***
	Joint attention	3.53(3.54)	2.15(2.60) <sub>a</sub>	3.26(2.74) <sub>a</sub>	5.50( 4.42) <sub>b</sub>	8.12***

\* $p < .05$ . \*\*\* $p < .001$ .

a,b는 Scheffé 사후검증결과임. 다른 문자는 집단 간 차이를 의미함.

<Table 3> Results of ANOVA for mothers' responsive verbal behaviors according to the three age groups

Mothers' responsive verbal behaviors	M(SD)				F
	Total (N = 93)	10~12 month (N = 34)	13~15 month (N = 31)	16~18 month (N = 28)	
Yes / no questions about object	.38( .95)	.44( .93)	.52( 1.26)	.14( .45)	1.26
Yes / no questions about infants' intention	8.51( 8.04)	9.79( 9.01) <sub>a</sub>	11.55( 8.07) <sub>a</sub>	3.57( 3.27) <sub>b</sub>	9.37***
Tag	.71( 1.40)	.68( 1.09)	.84( 1.86)	.61( 1.13)	.21
Onomatopoeia / mimetic word	13.55(12.33)	11.44( 9.10)	13.23(11.35)	16.46(16.10)	1.30
Requests for information	1.38( 1.75)	1.03( 1.03) <sub>a</sub>	2.10( 2.34) <sub>b</sub>	1.00( 1.47) <sub>a</sub>	4.23*
Requests for clarification or confirmation	.31( .83)	.18( .52)	.29( .82)	.50( 1.11)	1.18
Mand-models	.23( .66)	.15( .44)	.19( .60)	.36( .91)	.83
Naming objects and people	8.53( 6.07)	7.06( 5.96)	10.45( 6.42)	8.18( 5.39)	2.70
Imitations	2.30( 3.08)	1.85( 2.22)	2.68( 4.05)	2.43( 2.77)	.61
Descriptions	38.80(19.81)	37.41(21.94)	36.65(17.77)	42.86(19.32)	.85
Displaced speech	.61( 1.27)	.71( 1.27)	.39( .76)	.75( 1.67)	.74
Social play	12.85(13.62)	8.47( 8.49) <sub>a</sub>	12.39(10.54) <sub>ab</sub>	18.68(19.00) <sub>b</sub>	4.69*
Conventional social expressions	2.54( 3.16)	2.50( 3.00)	2.71( 2.30)	2.39( 4.13)	.08
Test questions	4.30( 3.27)	4.91( 3.50)	3.94( 3.07)	3.96( 3.20)	.93
Attention devices	1.04( 1.99)	1.56( 2.77)	.58( 1.43)	.93( 1.12)	2.08
Permission requests / suggestions	2.69( 2.60)	1.97( 1.88) <sub>a</sub>	1.81( 1.85) <sub>a</sub>	4.54( 3.13) <sub>b</sub>	12.73***
Asking / commands / warnings	13.28( 9.35)	11.09( 9.03)	13.68( 9.49)	15.50( 9.30)	1.78
Affirmatives	4.80( 5.15)	4.74( 5.27)	4.97( 5.77)	4.68( 4.39)	.03
Negations / criticisms	2.65( 3.63)	2.94( 4.31)	2.65( 3.62)	2.29( 2.73)	.25

\* $p < .05$ . \*\*\* $p < .001$ .

a,b는 Scheffé 사후검증결과임. 다른 문자는 집단 간 차이를 의미함.

의 영아들보다 유의하게 더 많이 사용하는 것이 나타났으며, 주의환기도 16~18개월 집단의 영아들이 다른 두 월령의 집단 보다 유의하게 더 많이 사용하였다.

어머니의 반응적 언어 중 월령집단에 따라 차이가 나는 것은 영아의 의도를 묻는 네/아니오 질문, 정보에 대한 요구, 사회적 놀이, 허용요구와 제안하기였다. 어머니의 반응적 언어 중 월령집단에 따라 차이가 나는 것은 영아의 의도를

묻는 네/아니오 질문, 정보에 대한 요구, 사회적 놀이, 허용요구와 제안하기였다. 월령집단 단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 영아의 의도를 묻는 네/아니오 질문에서는 16~18개월 집단의 어머니가 월령이 낮은 두 월령 집단의 어머니보다 유의하게 적게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에 대한 요구에서는 13~15개월 집단의 어머니가 다른 월령의 두 집단보다 유의하게 많이 사용하였으며 16~18개월 집단

<Table 4> Results of ANOVA for mothers' initiative verbal behaviors according to the three age groups

Mothers' initiative verbal behaviors	M(SD)				F
	Total (N = 93)	10~12 month (N = 34)	13~15 month (N = 31)	16~18 month (N = 28)	
Yes / no questions about object	.06( .29)	.15( .44)	.03( .18)	.00( .00)	2.37
Yes / no questions about infants' intention	2.37( .20)	2.65( 2.83) <sub>ab</sub>	3.48(4.18) <sub>b</sub>	.79(1.29) <sub>a</sub>	6.02**
Tag	.35( .69)	.44( .79)	.32( .70)	.29( .53)	.44
Onomatopoeia / mimetic word	8.22(6.85)	8.56( 6.83)	7.74(6.39)	8.32(7.57)	.12
Requests for information	.11( .43)	.09( .29)	.23( .67)	.00( .00)	2.15
Requests for clarification or confirmation	.01( .10)	.00( .00)	.03( .18)	.00( .00)	1.00
Mand-models	.24( .63)	.12( .33) <sub>a</sub>	.10( .30) <sub>a</sub>	.54(1.00) <sub>b</sub>	4.87**
Naming objects and people	9.00(6.18)	9.65( 7.06)	9.58(4.62)	7.57(6.52)	1.07
Descriptions	17.34(9.84)	20.44(12.05) <sub>b</sub>	14.00(6.88) <sub>a</sub>	17.29(8.64) <sub>ab</sub>	3.68*
Displaced speech	.58(1.06)	1.00( 1.39) <sub>a</sub>	.35( .71) <sub>b</sub>	.32( .72) <sub>b</sub>	4.56*
Social play	7.10(5.77)	6.91( 5.74)	7.39(5.30)	7.00(6.45)	.06
Conventional social expressions	1.78(2.05)	2.00( 2.34)	1.71(1.75)	1.61(2.04)	.31
Test questions	4.14(3.46)	5.06( 3.98)	3.90(3.25)	3.29(2.80)	2.18
Attention devices	2.25(3.63)	3.44( 5.23)	1.58(1.73)	1.54(2.33)	3.02
Permission requests / suggestions	2.16(2.63)	1.50( 1.85) <sub>a</sub>	1.10(1.35) <sub>a</sub>	4.14(3.40) <sub>b</sub>	15.04***
Asking / commands / warnings	12.37(7.37)	12.50( 9.44)	12.71(5.76)	11.82(6.23)	.11

\* $p < .05$ . \*\* $p < .01$ . \*\*\* $p < .001$ .

a,b는 Scheffé 사후검증결과임. 다른 문자는 집단 간 차이를 의미함.

의 어머니는 사회적 놀이, 허용요구와 제안하기에서 10~12개월 집단의 어머니보다 많이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었고 허용요구와 제안하기에서는 13~15개월 집단의 어머니보다 더 많이 사용하는 것이 나타났다.

어머니의 주의환기 언어 중에서 월령집단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난 것은 영아의 의도를 묻는 네/아니오 질문, 언어모델 보여주기, 묘사하기, 대치된 말, 허용요구와 제안하기였다.

어머니의 주의환기 언어 중에서 월령집단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난 것은 영아의 의도를 묻는 네/아니오 질문, 언어모델 보여주기, 묘사하기, 대치된 말, 허용요구와 제안하기였다. 월령집단 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한 사후검증 결과, 영아의 의도를 묻는 네/아니오 질문은 13~15개월 집단의 어머니가 16~18개월 집단의 어머니보다 유의하게 많이 사용하는 것이 나타났으며 언어모델 보여주기는 16~18개월 집단의 어머니가 다른 두 월령 집단의 어머니보다 유의하게 더 많이 사용하였다. 10~12개월 집단의

어머니는 13~15개월 집단보다 묘사하기와 대치된 말을 더 많이 사용하였으며 대치된 말의 사용에 있어서는 16~18개월 집단의 어머니 보다 유의하게 더 많이 사용하는 것이 나타났다.

## 2. 영아의 비언어적 의사소통과 영아 어휘력 간의 관계

영아의 비언어적 의사소통과 영아 어휘력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서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이는 월령을 통제하고 부분상관계수를 산출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영아의 표현 어휘력은 영아의 비언어적 의사소통 기능 중 주의환기와 유의한 정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r = .23, p < .05$ ). 즉 영아가 비언어적 의사소통의 수단을 주의환기의 기능으로 많이 사용할수록 영아의 표현 어휘력은 높았다.

다음으로 영아의 이해 어휘력은 영아의 비언어적 의사소통의 수단에서는 몸짓과 발성의 조합 ( $r = .24, p < .05$ ), 발성의 사용 ( $r = .28, p < .01$ )이 유의한 정적 상관으로 나타났다. 영아의 비언어적 의사소통의 기능에서는 행동통제가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 $r = .29, p < .01$ ). 즉 영아가 몸짓과

발성의 조합을 많이 사용하거나 발성만을 사용하는 비언어적 의사소통 수단을 많이 사용할수록 영아의 이해 어휘력이 높았으며 의사소통의 기능 중에서는 행동통제를 많이 할수록 영아의 이해 어휘력이 높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영아의 전체 어휘력은 영아의 비언어적 의사소통 수단 중 발성과 유의한 정적 상관이 나타났고 ( $r = .26, p < .05$ ) 기능에서는 행동통제 ( $r = .22, p < .05$ ), 주의환기 ( $r = .21, p < .05$ )와 유의한 정적 상관을 나타내었다. 따라서 영아가 비언어적 의사소통 수단 중 발성을 많이 하고 비언어적 의사소통의 수단을 행동통제나 주의환기를 위해 많이 사용할수록 전체 어휘력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 3. 어머니의 반응적 언어와 영아 어휘력 간의 관계

어머니의 반응적 언어와 영아 어휘력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월령을 통제하고 부분상관계수를 산출한 결과는 다음의 Table 6과 같다. 이를 살펴보면 영아의 표현 어휘력은 어머니의 반응적 언어 중 의성어와 의태어 ( $r = .21, p < .05$ ),

<Table 5> The partial correlation analyses of infants' nonverbal communication and infants' vocabulary ability

	Nonverbal communication	Total MCDI	Vocabulary production	Vocabulary comprehension
Means	Gestures	.08	-.02	.12
	Gestures + Vocalizations	.19	.01	.24
	Vocalizations	.26	.11	.28
Functions	Behavior regulation	.22	.01	.29
	Sociability of communicative functions	.12	.05	.14
	Joint attention	.21	.23*	.13

\* $p < .05$ . \*\* $p < .01$ .

<Table 6> The partial correlation analyses of mothers' responsive verbal behaviors and infants' vocabulary ability

Mothers' responsive verbal behaviors	Total MCDI	Vocabulary production	Vocabulary comprehension
Yes / no questions about object	.05	.03	.04
Yes / no questions about infants' intention	.13	-.02	.19
Tag	-.004	-.12	.08
Onomatopoeia / mimetic word	.20	.21*	.14
Requests for information	.11	-.12	.23*
Requests for clarification or confirmation	.13	-.01	.19
Mand-models	.11	.19	.03
Naming objects and people	.13	.14	.08
Imitations	.19	.25*	.09
Descriptions	.26*	.10	.28**
Displaced speech	.01	.07	-.03
Social play	.04	.05	.03
Conventional social expressions	.24*	.23*	.18
Test questions	.15	.12	.12
Attention devices	.12	.08	.11
Permission requests / suggestions	-.004	-.15	.09
Asking / commands / warnings	-.004	-.15	.09
Affirmatives	-.004	-.15	.09
Negations / criticisms	-.01	-.04	.01

\* $p < .05$ . \*\* $p < .01$ .

모방하기( $r = .25, p < .05$ ), 관습적인 사회적 표현( $r = .23, p < .05$ )과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어머니가 영아에게 반응적 언어로 의성어와 의태어를 많이 사용하고 영아를 모방하며 관습적인 사회적 표현을 많이 할수록 영아의 표현 어휘력이 높았다.

다음으로 영아의 이해 어휘력은 어머니의 반응적 언어 중 정보에 대한 요구( $r = .23, p < .05$ )와 묘사하기에서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r = .28, p < .01$ ). 이에 따라 어머니가 영아에게 반응적 언어로 정보에 대한 요구를 많이 하고, 묘사하기를 많이 할수록 영아의 이해 어

휘력이 높았다. 어머니의 반응적 언어 중 묘사하기는 영아의 전체 어휘력보다도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r = .26, p < .01$ ) 관습적인 사회적 표현도 영아의 전체 어휘력과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즉 어머니가 반응적 언어로 묘사하기를 많이 하고 관습적인 사회적 표현을 자주 할수록 영아의 전체 어휘력은 높았다.

#### 4. 어머니의 주의환기 언어와 영아 어휘력 간의 관계

어머니의 주의환기 언어와 영아 어휘력 간의

<Table 7> The partial correlation analyses of mothers' initiative verbal behaviors and infants' vocabulary ability

Mothers' initiative verbal behaviors	Total MCDI	Vocabulary production	Vocabulary comprehension
Yes / no questions about object	- .13	- .07	- .13
Yes / no questions about infants' intention	- .07	- .05	- .06
Tag	- .03	- .13	.05
Onomatopoeia / mimetic word	.13	.13	.09
Requests for information	- .04	- .02	- .04
Requests for clarification or confirmation	- .06	- .07	- .04
Mand-models	- .05	- .18	.05
Naming objects and people	- .04	- .08	- .01
Descriptions	- .04	- .12	.02
Displaced speech	.02	- .04	.05
Social play	.26*	.23*	.20*
Conventional social expressions	.13	.18	.05
Test questions	- .13	- .15	- .09
Attention devices	- .08	- .09	- .05
Permission requests / suggestions	.00	- .11	.07
Asking / commands / warnings	.05	- .13	.15

\* $p < .05$ . \*\* $p < .01$ .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월령을 통제하고 부분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어머니의 주의환기 언어 중 사회적 놀이 제안이 영아의 표현 어휘력( $r = .23, p < .05$ ), 이해 어휘력( $r = .20, p < .05$ ), 전체 어휘력( $r = .26, p < .05$ )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나타내었다. 즉 어머니가 주의환기를 위해 영아에게 사회적 놀이를 제안하는 언어를 많이 사용할수록 영아의 표현 어휘력, 이해 어휘력, 전체 어휘력이 높음을 알 수 있었다.

####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를 통해서 얻은 결과를 중심으로 영아의 비언어적 의사소통 및 어머니의 주의환기

언어, 반응적 언어와 영아의 어휘력 간의 관계에 대해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영아의 비언어적 의사소통 수단과 기능의 빈도 평균을 월령집단에 따라 분석한 결과, 비언어적 의사소통 수단 중 몸짓과 발성의 조합, 발성이 월령 집단 간의 차이가 유의하였으며 몸짓은 월령 집단에 따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아의 비언어적 의사소통 수단 중 발성과 몸짓은 월령집단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Carpenter, Mastergeorge와 Coggins(1983)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지만 Lee(2006)의 연구결과와는 불일치하는 것이다. 또한 영아의 몸짓이 월령 집단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고 한 선행연구(Kim & Kim, 2006; Messinger & Fogel, 1998)와도 일치하지 않는 결과였다. 이

처럼 결과들이 일치하지 않는 이유들을 추측해보면 선행 연구들은 영아의 비언어적 의사소통 수단을 실험실 상황에서 관찰하고자 하였거나 (Kim & Kim, 2006; Lee, 2006) 월령집단을 구분한 월령 범위의 차이에서 비롯될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의 대상 영아들은 10~18개월로 단어급증이 나타나지 않는 시기이나 선행 연구들(Kim & Kim, 2006; Lee, 2006)의 대상은 단어급증이 나타나는 19~24개월의 영아를 포함하여 비교하였다. 이 시기는 단어라는 새로운 의사소통 수단의 사용함으로써 몸짓을 사용하는 것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아직 단어 급증이 일어나기 전의 영아를 대상으로 한 본 연구 결과와 불일치하는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영아의 발성 빈도 평균이 월령집단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는 점은 선행연구(Lee, 2009; Fagan, 2009; Harding & Golinkoff, 1979; Nathani, Ertmer, & Stark, 2006)들과 일치하는 결과였다. 16~18개월 집단의 영아들은 비언어적 의사소통의 수단으로 몸짓과 발성의 조합을 가장 많이 사용하였고 13~15개월 집단의 영아들은 발성만을 많이 사용하는 것이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18개월 영아들은 발성과 몸짓의 조합으로, 12개월 영아들은 몸짓이나 발성 한 가지만으로 의사소통 의도를 더 많이 표현한다는 Wetherby, Prizant와 Hutchinson(1998)의 결과를 지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영아의 비언어적 의사소통 기능 중 행동통제를 제외한 사회적 행위와 주의환기는 월령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것은 Lee(2006)의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였으며 16~18개월 집단의 영아들이 월령이 낮은 집단의 영아들보다 주의환기를 의사소통 기능으로 더 많이 사용하는 것이 나타나 영아의 비언어적 의사소통의 기능에서 행동통제와 사회적 행위가

먼저 출현하고 이후 주의환기가 나타난다는 결과(Carpenter, Mastergeorge, & Coggins, 1983; Crais, Douglas, & Campbell, 2004)와도 맥을 같이 하는 것이다.

어머니의 반응적 언어에서는 하위 어머니 언어행동의 유형에 따라 월령 집단 별 유의한 차이가 있고 없음이 나타났다. 16~18개월 집단의 어머니는 다른 낮은 두 월령 집단의 어머니 보다 사회적 놀이와 허용요구과 제안하기를 반응적 언어로 유의하게 많이 사용하였으나 영아의 의도를 묻는 네/아니오 질문은 적게 사용하였다. 어머니의 반응적 언어 중 정보요구 언어 행동은 13~15개월 집단의 어머니가 유의하게 많이 사용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것은 영아의 언어와 행동 표현에 대해 반응을 해주는 피드백이 월령별 차이가 나타났다는 연구결과(Lee *et al.*, 2004)와 차이가 없었다는 결과(Tamis-LeMonda *et al.*, 1994)와 일치하지 않았다.

13~15개월 집단의 어머니가 영아의 의도를 묻는 네/아니오 질문을 다른 월령 집단의 어머니보다 많이 한 것은 앞서 어머니의 주의환기 언어 중 영아의 의도를 묻는 네/아니오 질문을 살펴 보았을 때와 맥을 같이한다고 볼 수 있다. 이 시기 영아의 놀이가 12개월 이전 시기보다 좀 더 높은 수준으로 발달하기 때문에 영아가 시작한 행동이나 주의에 인접하여 어머니가 반응적 언어를 할 경우 이들의 의도에 대해 묻는 질문을 더 많이 하게 되는 것이라고도 해석해 볼 수 있다.

한편, 13~15개월 집단의 어머니가 영아에게 정보에 대한 요구를 다른 월령 집단의 어머니들보다 더 많이 하는 것은 이 시기의 영아들이 16개월 이상의 영아들보다 단어를 발음하는 것의 명료성은 덜 하지만 첫 단어 발화 후 발성이 많이 증가하였다는 것과 연결하여 해석이 가능하

다. 즉 어머니는 영아의 첫 단어 발화 후 발생이 많아지면 이를 영아의 의사소통 의도로 받아들여 현재 영아가 어떤 정보를 지니고 있다고 여기며 요구를 더 많이 하게 된 것이라고 추측해 볼 수 있다. 또한 12개월 이전의 영아들보다 이동능력은 더 발달하였기 때문에 움직임이나 행동은 외현적으로 잘 드러나므로 어머니는 영아에게 정보에 대한 요구를 더 많이 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16~18개월 집단의 어머니가 반응적 언어로 사회적 놀이와 허용요구와 제안하기를 다른 월령 집단의 어머니보다 많이 사용하는 것은 이 시기 영아들의 언어발달과 놀이 발달 특성으로 설명할 수 있다. 16~18개월 영아는 인지발달에 있어서도 대상에 대한 표상이 가능해 지기 때문에 놀이에서 가장놀이가 나타나는 것과도 관련이 있다(Bretherton, 1984). 영아는 놀이와 어머니와의 상호작용에서 더 복잡하고 수준 높은 놀이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어머니의 사회적 놀이, 허용 요구와 제안하기를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어머니의 주의환기 언어를 하위요인에 따라 분류한 범주에서도 월령집단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난 언어행동과 차이가 없는 언어행동이 있었다. 16~18개월 집단의 어머니들은 언어모델 보여주기, 허용요구와 제안하기를 가장 많이 하였고 영아의 의도를 묻는 네/아니오 질문은 다른 월령이 낮은 두 집단의 어머니들보다 더 적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묘사하기와 대치된 말의 사용에 있어서는 10~12개월 집단의 어머니가 다른 높은 월령의 집단의 어머니보다 더 많이 사용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의 주의환기 언어는 월령집단 별 차이가 없었다는 결과(Lee, Lee., & Chang, 2004)와 일치하지 않았으나 좀 더 높은 월령 집

단의 어머니는 낮은 월령의 어머니보다 영아의 주의를 주도적으로 이끌려고 하는 것이 덜 하였다는 연구(Power, 1985)와 부분적으로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10~12개월 집단의 어머니가 다른 높은 월령 집단의 어머니보다 묘사하기와 대치된 말을 많이 사용하는 것은 이 시기에는 아직 단어가 출현하지 않은 시기이기 때문에 영아의 주의를 끌기 위한 어머니의 주도성이 적극적으로 표현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13~15개월 집단 어머니가 영아의 의도를 묻는 네/아니오 질문은 16~18개월 영아 어머니 보다 더 많이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영아가 12개월 이전에는 대상을 기능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반복하다가 13~15개월 시기가 되면 의미있는 행위를 놀이처럼 하는 것이 가능해지기 때문(Bretherton, 1984)으로 추측할 수 있다. 즉 어머니는 영아와 놀이 상호작용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다양한 대상과 상황에 영아의 주의를 끌기 위해 영아의 의도를 묻게 되는 것이다.

16~18개월 집단의 어머니가 주의환기 언어로 언어모델 보여주기와 허용요구와 제안하기를 다른 월령 집단의 어머니보다 많이 사용하는 것은 이 시기 영아들의 언어발달과 놀이 발달 특성으로 설명할 수 있다. 영아는 16개월 무렵부터 18개월이 가까워지면서 단어들의 수가 점차 늘어나며 18개월된 영아는 50개 정도의 단어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Hoff, 2009). 어머니는 영아가 단어를 자주 사용하게 되는 것을 이해하게 되고 언어적 모델을 제시하여 어휘습득을 촉진하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이 시기의 영아는 인형을 가지고 하는 가장놀이가 가능해지고 사물에 대한 가작화와 사람에 대한 가작화로 복잡한 수준의 놀이를 하게 되므로(Bretherton, 1984) 어머니는 영아의 주의를 끌기 위한 새로운 제안을 많이 하게 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의 차이는 선행 연구들이 어머니의 주의환기 언어 또는 반응적 언어라는 한 가지의 유형으로 어머니 언어행동을 분석하였던 반면 본 연구는 어머니의 주의환기 언어와 반응적 언어 하위요인 범주를 세분화하여 분석하였기 때문에 선행연구에서 나타나지 않았던 월령집단에 따른 차이가 각 어머니 언어행동의 하위 유형 별로 나타난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둘째, 영아의 비언어적 의사소통 수단과 기능은 월령집단 별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기 때문에 영아의 비언어적 의사소통 수단, 기능과 영아의 어휘력 간의 관계를 알아 보기 위해서 월령을 통제된 뒤 살펴보았다.

영아의 비언어적 의사소통 수단 중에서 몸짓은 영아의 어휘력과 유의한 상관이 없었으나 몸짓과 발성의 조합이 이해 어휘력과 유의한 상관이 있음이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 연구 중 의사소통 수단의 하나인 몸짓이 어휘습득과 관련이 있다는 결과들(Acredolo, & Goodwyn, 1985; Bates, Thal, Whitesell, Fenson, & Oakes, 1989; Goodwyn, Acredolo, & Brown, 2000; Kwon & Kim, 2011; Kim & Kim, 2006)과 부분적으로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몸짓과 발성을 분리하여 3가지 유형으로 살펴보면서 몸짓만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몸짓과 발성을 함께 사용하는 것이 어휘력 증진과 관련이 있음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는 영아가 몸짓과 함께 발성을 하는 것이 몸짓의 의사소통 메시지를 강화시키고 강조하는데 효과적이라는 점(Harding & Golinkoff, 1979; Rome-Flanders & Cronk, 1995)을 뒷받침 한다. 다음으로 영아의 비언어적 의사소통의 기능과 어휘력 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행동통제는 영아의 이해 어휘력과 전체 어휘력에서 유의한 정적상관이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주의환기 기능도 영아의 표현 어휘력과 전체 어휘력에서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었으나 사회적 행위는 영아의 어휘력과 유의한 상관이 나타나지 않았다. 영아가 비언어적 의사소통 수단을 주의환기 기능으로 많이 사용할수록 어휘력이 높았다는 것은 주의환기가 영아의 어휘력과 정적 상관이 나타났다는 이유진(2009)의 연구와 일치한 결과였으며 영아들이 몸짓을 주의환기와 행동통제로 많이 사용할수록 어휘력이 높았다는 선행연구(Blake, Osborne, Cabral, & Gluck, 2003; Camaioni, Castelli, Longobardi, & Volterra, 1991)와도 일치하였다.

본 연구에서 영아가 행동통제의 기능을 많이 사용할수록 이해 어휘력이 높았고 주의환기의 기능을 많이 사용할수록 표현어휘력이 높게 나타난 결과를 설명하자면 영아의 행동통제와 주의환기가 어머니와 상호작용할 때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대하여 살펴 볼 필요가 있다. 먼저 행동통제를 살펴보면, 영아가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어머니의 행동을 규제하거나 거부, 사물요구를 할수록 어머니는 영아의 행동을 이해하기 위한 단서들(“손가락 달라구?” “세수하기 싫구나”)을 많이 사용하였다. 이때 영아는 어머니가 사용한 단서들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나 이 단서들을 표현어휘로 산출할 필요는 없다. 단지 어머니의 단서에 대하여 긍정인지 부정인지 여부를 표현하면 되는 것이다.

이와는 달리 영아가 어머니에게 주의환기를 많이 사용한다는 것은 어머니가 함께 주의를 기울이거나 어떤 사물, 사건에 대한 정보 요구를 많이 하는 것을 의미한다. 어머니는 영아의 이러한 요구에 언어적으로 설명하거나 명료화함으로써(“실로폰. 실로폰이야” “두드리면 소리가 나지”) 영아가 주의를 집중하고 있는 대상과 그 대상을 의미하는 언어로 연결하도록 돕게 된다. 이

때 영아는 발화의 모델을 갖게 되고 자발적인 발화의 기회를 더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표현어휘는 단어를 상기하고 그 단어를 적절한 발음으로 발화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Golinkoff, Hirsh-Pasek, Cauley, & Gordon, 1987). 영아의 비언어적 의사소통 기능 중 사회적 행위와 영아의 어휘력이 유의한 상관이 나타나지 않은 결과는 영아가 사회적 행위의 비언어적 의사소통의 기능을 많이 사용할수록 영아의 어휘력이 높았다는 선행연구들(Laakso, Poikkeus, Eklund, & Lyytinen, 1999; Laakso, Poikkeus, Katajamäki, & Lyytinen, 1999)과 일치하지 않았다. 이러한 연구 결과의 불일치는 영아의 사회적 행위에 대한 정의의 차이에서 추론해 볼 수 있다. 선행연구들에서 살펴 본 영아의 사회적 행위 기능은 어머니가 제안하거나 설명하는 대상 또는 활동에 대해 영아가 따라하거나 수용하는 것으로만 분석한 반면 본 연구의 분석범위에서는 영아의 사회적 행위를 더 높은 수준의 동의하거나 사회적 게임, 관습적 행동 따라 하기 등도 포함하였기 때문에 윌령을 통제된 뒤에는 이러한 사회적 행위와 어휘력 간의 관계가 희석될 가능성으로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영아들이 몸짓과 발성을 수단으로 어머니에게 행동통제를 많이 하며 어머니를 향해 주의 환기를 자주 할수록 영아의 어휘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것은 이러한 의사소통 기능이 영아의 의사소통 의도를 더욱 분명하도록 이끌며 동시에 어머니에 의한 언어적 입력과 반응도 더 많이 유도할 수 있다(Wilcox, 1992; Yoder, P. J., Warren, Kim, & Gazdag, 1994)는 점을 시사한다.

어머니의 반응적 언어와 영아 어휘력 간의 관계를 살펴 본 결과, 어머니의 반응적 언어를 하위요인에 따라 분류한 언어 중 영아의 어휘력

과 유의한 상관이 나타난 언어적 행동이 있었다. 이는 영아가 시작한 행동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은 영아의 어휘와 유의한 상관이 없었다는 결과(Lee *et al.*, 2005)와는 일치하지 않으며 영아의 주의나 발성, 놀이, 행동에 대해 인접하여 반응하는 어머니의 언어적 행동과 영아의 언어가 유의한 상관이 있었다는 선행연구들(Baumwell, Tamis-LeMonda, & Catherine, 1997; Rollins, 2003; Tamis-LeMonda, Bornstein, & Baumwell, 2001)과는 부분적으로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사물에 대한 네/아니오 질문과 영아의 의도를 묻는 네/아니오 질문, 명명하기, 허용요구과 제안하기와 영아의 어휘력 간에는 유의한 상관이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러한 결과는 Paavola, Kunnari, Moilanen과 Lehtihalmes (2005)의 연구에서 어머니가 반응적 언어로 네/아니오 질문, 명명하기, 허용요구과 제안하기를 많이 할수록 영아의 어휘력이 높게 나타났다는 결과와는 일치하지 않는 것이었다. 반면 어머니의 반응적 언어 중 모방하기, 묘사하기가 영아의 어휘력과 유의한 정적 상관이 나타나 13개월 영아의 어머니가 반응적 언어로서 모방, 묘사를 많이 할수록 영아의 어휘력이 높았다는 연구결과(Shin, 2006; Tamis-LeMonda, Bornstein, & Baumwell, 2001)와 일치하였다.

본 연구 결과와 두 선행 연구 간의 일치하는 바가 달리 나타난 것은 어머니의 언어적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문화적 차이를 원인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특히 어머니와 영아 상호작용에서 어머니의 화용적 입력(pragmatic input)과 관련된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화적 차이가 두드러지게 나타난다(Vigil & Hwa-Froelich, 2004)는 점이 이러한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 또 다른 해석은 Paavola, Kunnari, Moilanen과 Lehtihalmes (2005)의 연구 대상 영아의 윌령이 10개월 단일

월령이라는 특성을 고려할 수 있다. 10개월 영아는 자신의 의도를 소통하고자 하나 아직 단어가 나타나지 않는 언표내적 단계(illocutionary stage)이다(Owens, 2005). 어머니는 이 시기의 영아에게 네/아니오 질문, 명명하기, 허용요구과 제한하기를 많이 사용함으로써 영아의 의도를 파악하는데 집중하고자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영아 어휘력과 유의한 정적 상관이 나타난 어머니의 반응적 언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어머니의 모방이 많을수록 영아의 표현 어휘력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어머니의 모방이 영아의 의사소통 의도를 강화해주며 어머니와의 대화가 영아 자신의 흥미를 격려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으며(Tamis-LeMonda *et al.*, 2001) 또한 모방은 영아가 자신이 표현한 것과 어머니가 표현한 것을 즉시 비교하도록 도와주면서 영아 자신이 표현한 것에 대한 확신과 모델을 제공하기 때문에 영아의 표현 어휘력 신장에 도움이 될 수 있다(Hart & Risley, 1995).

영아의 어휘력과 유의한 관계가 나타난 또 다른 어머니의 언어적 행동은 묘사하기였다. 즉 어머니가 반응적 언어로 묘사하기를 많이 할수록 영아의 이해 어휘력과 전체 어휘력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묘사하기가 영아의 주의나 행동과 연결 짓는(mapping) 언어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과 관련이 된다(Yoder & Warren, 1998). 이와 같은 언어적 정보의 제공은 영아에게 대상의 의미와 이를 상징하는 어휘를 이해하는 것에 도움이 되는 것이다.

또한 어머니가 반응적 언어로 의성어와 의태어를 많이 사용할수록 영아의 표현 어휘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을 알 수 있다. 단어는 의미와 형식에 있어서 인위적인 관계(arbitrary link)로 되어 있다. 그러나 의성어와 의태어 속에 포함된 소리와 모양의 상징성은 그 단어를 인식할 때 단

어의 의미를 대상의 속성으로 자연스럽게 연결 짓도록 돕게 된다(Imai, Kita, Nagumo, & Okada, 2008; Kita, Kantartzis, & Imai, 2010). 따라서 어머니가 의성어와 의태어를 많이 사용할 수록 영아는 주변의 상황, 대상, 행위 등을 언급하는 단어를 더 잘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다음으로 영아의 이해 어휘력과 유의한 상관이 있었던 어머니 언어적 행동은 정보에 대한 요구였다. 정보에 대한 요구는 어머니가 갖고 있지 않는 정보를 영아에게 물어 보는 것이다. 이는 영아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영아의 행동에 대한 이유를 영아에게 다시 물어봄으로써 영아가 자신의 행동과 상황에 대하여 이해하도록 돕는 것이다. 영아는 부모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대답하기 위해서 시간이 필요한데(Vigil, Hodges, & Klee, 2005) 어머니의 반응적 언어 중 정보에 대한 요구는 영아가 현재 자신에게 일어난 상황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영아의 표현 어휘력, 전체 어휘력과 유의한 상관이 있었던 어머니의 언어적 행동은 관습적인 사회적 표현이었다. 어머니의 관습적인 사회적 표현의 사용은 영아에게 진정한 의미의 단어(real word)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영아의 언어는 특정한 맥락에 국한되는 맥락의존적인 단어에서 진정한 의미의 단어를 사용하는 것으로 발달하게 된다. 진정한 의미의 단어는 다양한 상황에서 같은 유형을 가리키는 것으로 사용되어야 하며 그 사회의 구성원 누구나 사용하는 관습적인 단어여야 한다(Golinkoff & Hirsh-Pasek, 2000). 어머니가 ‘고맙습니다’ ‘미안해’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는 것은 영아가 이 단어를 장난감을 주고받는 맥락에서만 아니라 다른 맥락에서도 무엇인가를 주고받는 행위, 도움을 주고받을 때 등의 유형으로 이

해할 수 있도록 도와줌으로써 어휘발달에도 긍정적인 관련이 있음을 추측해 볼 수 있다.

어머니의 주의환기 언어와 영아 어휘력 간의 관계를 살펴 본 결과, 어머니의 주의환기 언어를 의사소통 의도와 기능에 따라 분류한 언어 행동 중 영아의 어휘력과 유의한 상관성이 나타난 언어적 행동이 있었다. 어머니가 사회적 놀이 제안을 주의환기 언어로 많이 사용할수록 영아의 표현 어휘력과 이해 어휘력, 전체 어휘력에서 모두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어머니의 주의환기 언어와 15개월 영아의 어휘력이 부적 상관으로 나타났다는 연구(Lee *et al.*, 2005)와 일치 하지 않으며 13~24개월 영아의 어휘 발달은 어머니의 주의환기가 많을수록 촉진 되었다는 결과(Lee *et al.*, 2004)와 부분적으로 일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어머니의 주의 지시적인(attention-directing) 언어적 행동 중 까꿍놀이나 장난감 주고 받기 등의 의식화된 활동(ritualized activity) 즉 사회적 놀이를 많이 하는 것이 15개월과 18개월 영아의 어휘력 증진과 관련이 있었다는 선행연구(Smith *et al.*, 1988)와 일치하는 것이다. 어머니의 주의환기 언어 중 사회적 놀이 제안 이외에 다른 하위 언어적 행동은 유의한 상관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의성어와 의태어, 관습적인 사회적 표현을 제외한 사물에 대한 네/아니오 질문, 영아의 의도를 묻는 네/아니오 질문, 부가된 말, 정보에 대한 요구, 분명함이나 확신을 요구하기, 언어모델 보여주기, 명명하기, 묘사하기, 대치된 말, 테스트 질문, 주의끌기 말, 허용요구과 제안하기, 청유/명령/경고의 13개 언어적 행동은 유의한 상관은 아니었으나 부적인 관련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어머니의 주의환기 언어에서도 하위요인별 언어적 행동에 따라 영아의 어휘력과 다른 관계가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어머니의 주의환기 언어 중 사회적 놀이 제안이 많을수록 영아의 어휘력이 높았다는 것은 다음의 2가지 가능성을 추론해 볼 수 있다. 첫째, 가작화된 요소가 포함된 사회적 놀이 제안으로 영아의 주의를 끌려는 어머니의 언어적 행동은 영아가 비상장 놀이에서 상징놀이로 가는 비계설정(scaffolding)을 해 주는 것으로 이는 영아의 상징놀이와 언어발달 간의 밀접한 관련성(Casby & Ruder, 1983; Nicolich, 1977; Spencer, 1996)을 강화 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어머니의 주의환기 언어로서 사회적 놀이 제안은 영아가 언어를 적극적으로 배울 수 있는 맥락을 제공한다는 점이다. 영아는 자신의 주의를 더 많이 쏟게 되는 놀이에서 능동적으로 배우게 되며(Lifter & Bloom, 1998) 또한 놀이 자체에도 많은 주의를 집중하게 됨으로써(Ruff & Saltarelli, 1993; Wikström, 1994) 영아의 언어발달을 촉진할 수 있다는 것이다(Dixon & Smith, 2000; Matheny, 1989).

본 연구의 제한점을 제시하면서 동시에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대상은 공개적인 모집과 눈덩이 표집으로 이루어졌으며 저소득 가정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기 위해서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 따라서 부모의 다양한 사회경제적 지위가 포함되어 연구를 실시한다면 영아의 비언어적 의사소통과 어머니의 언어적 행동에 대한 보다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어머니 보고에 의해 영아의 어휘력을 측정하였기 때문에 어머니에 따라 엄격하게 체크하거나 지나치게 관용적으로 보고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 추후에는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방법으로 영아의 어휘력을 알아보는 연구가 필요하다.

## References

- Acredolo, L. P., & Goodwyn, S. W. (1985). Symbolic gesturing in language development : A case study. *Human Development, 28*(1), 40-49.
- Adamson, L. B., & Chance, S. E. (1998). Coordinating attention to people, objects, and language. In A. M. Wetherby, S. F. Warren, & J. Reichle (Eds.), *Transitions in prelinguistic communication* (pp. 15-37). Baltimore : P. H. Brookes Pub.
- Bates, E., Camaioni, L., & Volterra, V. (1975). The acquisition of performatives prior to speech. *Merrill-Palmer Quarterly :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21*(3), 205-226.
- Bates, E., Thal, D., Whitesell, K., Fenson, L., & Oakes, L. (1989). Integrating language and gesture in infancy. *Developmental Psychology, 25*(6), 1004-1019.
- Baumwell, L., Tamis-LeMonda M, H., & Catherine, S. (1997). Maternal verbal sensitivity and child language comprehension. *Infant Behavior and Development, 20*(2), 247-258.
- Benedict, H. (1979). Early lexical development : comprehension and production. *Journal of Child Language, 6*(2), 183-200.
- Blake, J., Osborne, P., Cabral, M., & Gluck, P. (2003). The development of communicative gestures in japanese infants. *First Language, 23*(1), 3-20.
- Bloom, L. (1973). One word at a time : The use of single word utterances before syntax. New York : The Hague Mouton.
- Bornstein, M. H., & Tamis-LeMonda, C. S. (1990). Activities and interactions of mothers and their firstborn infants in the first six months of life : Covariation, stability, continuity, correspondence, and prediction. *Child Development, 61*, 1206-1217.
- Bornstein, M. H., Tamis LeMonda, C. S., Tal, J., Ludemann, P., Toda, S. Rahn, C. W., Pêcheux, M., Azuma, H., & Vardi, D. (1992). Maternal responsiveness to infants in three societies : The united states, france, and japan. *Child Development, 63*(4), 808-821.
- Bretherton, I. (1984). Representing the social world in symbolic play : Reality and fantasy. In I, Bretherton(Ed.), *Symbolic Play : The Development of Social Understanding* (pp. 3-41). New York : Academic Press.
- Brookhart, J., & Hock, E. (1976). The effects of experimental context and experiential background on infants' behavior toward mothers and a stranger. *Child Development, 47*, 333-340.
- Bruner, J. S. (1975b). The ontogenesis of speech acts. *Journal of Child Language, 2*(1), 1-19.
- Bruner, J. S. (1985). Child's talk : Learning to use language. *Child Language Teaching and Therapy, 1*(1), 111-114.
- Camaioni, L., Castelli, M. C., Longobardi, E., & Volterra, V. (1991). A parent report instrument for early language assessment. *First Language, 11*(33), 345-358.
- Capirci, O., Iverson, J., Pizzuto, E., & Volterra, V. (1996). Gestures and words during the transition to two-word speech. *Journal of Child Language, 23*(3), 645-673.
- Carpenter, R. L., Mastergeorge, A. M., & Coggins, T. E. (1983). The acquisition of communicative intentions in infants eight to fifteen

- months of age. *Language and Speech*, 26(2), 101-116.
- Casby, M. W., & Ruder, K. F. (1983). Symbolic play and early language development in normal and mentally retarded children. *Journal of Speech and Hearing Research*, 26(3), 404-411.
- Crais, E., Douglas, D. D., & Campbell, C. C. (2004). The intersection of the development of gestures and intentionality. *Journal of Speech, Language, and Hearing Research*, 47, 678-694.
- Dixon Jr, W. E., & Smith, P. H. (2000). Links between early temperament and language acquisition. *Merrill-Palmer Quarterly*, 46, 417-440.
- Dunham, P., & Dunham, F. (1990). Effects of Mother-infant social interactions on infants' subsequent contingency task performance. *Child Development*, 61(3), 785-793.
- Dunham, P.J., & Dunham, F. (1995). Optimal social structures and adaptive infant development. In C. Moore and P.J. Dunham (Eds.), *Joint attention : Its origin and role in development* (p. 159-188). Hillsdale, NJ : Lawrence Erlbaum.
- Fagan, M. K. (2009). Mean length of utterance before words and grammar : Longitudinal trends and developmental implications of infant vocalizations. *Journal of Child Language*, 36(3), 495-527.
- Flynn, V., & Masur, E. (2007). Characteristics of maternal verbal style : Responsiveness and directiveness in two natural contexts. *Journal of Child Language*, 34(3), 519-543.
- Goldin-Meadow, S., & Morford, M. (1985). Gesture in early child language : Studies of deaf and hearing children. *Merrill-Palmer Quarterly* :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31(2), 145-176.
- Golinkoff, R. M., & Hirsh-Pasek, K. (2000). How babies talk : The magic and mystery of language in the first three years of life. New York : A Plume Book.
- Golinkoff, R. M., Hirsh-Pasek, K., Cauley, K. M., & Gordon, L. (1987). The eyes have it : Lexical and syntactic comprehension in a new paradigm. *Journal of Child Language*, 14(1), 23-45.
- Goodwyn, S. W., Acredolo, L. P., & Brown, C. A. (2000). Impact of symbolic gesturing on early language development. *Journal of Nonverbal Behavior*, 24(2), 81-103.
- Harding, C. G., & Golinkoff, R. M. (1979). The origins of intentional vocalizations in prelinguistic infants. *Child Development*, 50(1), 33-40.
- Hart, B., & Risley, T. R. (1995). *Meaningful differences in the everyday experience of young american children*. Baltimore, MA : Brookes Publishing.
- Hoff, E. (2009). *Language development*. Stamford, MA : Wadsworth Publishing.
- Hong, G. H. (2007). A longitudinal study of communicative intention variables for predicting expressive vocabulary development of the "late-talkers". *Journal of early childhood special education*, 7(1), 97-115.
- Imai, M., Kita, S., Nagumo, M., & Okada, H. (2008). Sound symbolism facilitates early verb learning. *Cognition*, 109(1), 54-65.
- Karrass, J., Braungart-Rieker, J. M., Mullins, J., & Lefever, J. B. (2002). Processes in language acquisition : The roles of gender, attention,

- and maternal encouragement of attention over time. *Journal of Child Language*, 29(3), 519-543.
- Kim, E. H., & Kim, M. S. (2006).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ommunicative Gesture and the Vocabulary Acquisition of Infants.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27(6), 217-234.
- Kim, K. J. (2000). The toddler-mother interaction types and toddler language development.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Duksung Women's University, Seoul, Korea.
- Kim, M. S., & Lee, Y. J. (2007). The Relationship between Mother's Interactive Responsiveness and Infant's Communication.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45(3), 97-107.
- Kim, Y. S., & Kwak, K. J. (2010). The Relationship between Maternal Verbal Responsiveness, Infant's Social Communication Ability during Infancy and Language Ability in Early Childhood. *The Korean journal of human development*, 17(1), 191-207.
- Kita, S., Kantartzis, K., & Imai, M. (2010). Children learn sound symbolic words better : Evolutionary vestige of sound symbolic proto-language. In A. D. M. Smith, M. Schouwstra, B. Boer, & K. Smith (Eds.), *The Evolution of Language* (pp. 206-213). Singapore : World Scientific Publishing.
- Kwon, Y. H., & Kim, Y. M. (2011). The characteristic comparison of the communicative gestures and the vocabulary developments in the hearing impaired infants and the normal infants. *The Journal of Special Children Education*, 13(2), 151-174.
- Laakso, M. L., Poikkeus, A. M., Eklund, K., & Lyytinen, P. (1999). Social interactional behaviors and symbolic play competence as predictors of language development and their associations with maternal attention-directing strategies. *Infant Behavior and Development*, 22, 541-556.
- Laakso, M. L., Poikkeus, A. M., Katajamäki, J., & Lyytinen, P. (1999). Early intentional communication as a predictor of language development in young toddlers. *First Language*, 19(56), 207-231.
- Lee, K. O. (2006). Relationship between maternal conversational function and question type and early language development. *The Korean journal of community living science*, 17(3), 3-14.
- Lee, Y. J. (2006). *The relationship among infants' communication aged 10 to 24 months, mothers' communication, and mother-infant interactive responsivenes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Yonsei University, Seoul, Korea.
- Lee, Y. J. (2009). The relationship between early communicative skills and vocabulary development, and the effects of early communicative skills on the vocabulary development for toddlers. *The Journal of Korea Open Association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14(1), 151-173.
- Lee, J. Y., Lee, K. Y., & Chang, Y. K. (2004). The effect of maternal verbal interaction style on infants' early vocabulary development during picture book reading. *The Korean journal of development psychology*, 17(1), 131-146.
- Lee, J. Y., Chang, Y. K., Kwak, K. J., Seong, H. R., & Sim, H. O. (2005). The Short-term

- Longitudinal Study of Maternal Verbal Behaviors in Early Infancy. *The Korean journal of development psychology*, 18(1), 61-77.
- Lewis, M., & Freedle, R. (1973). Mother-infant dyad : The cradle of meaning. In P. Pliner, L. Krames, & T. Alloway (Eds.), *Communication and affect : Language and thought*. New York : Academic Press.
- Lifter, K., & Bloom, L. (1998). Intentionality and the role of play in the transition to language. In A. M. Wetherby, S. F. Warren, & J. Reichle (Eds.), *Transitions in prelinguistic communication* (pp. 15-37). Baltimore : P. H. Brookes Pub.
- Locke, J. L., & Pearson, D. M. (1990). Linguistic significance of babbling : Evidence from a tracheostomized infant. *Journal of Child Language*, 17(1), 1-16.
- Matheny, A. P. Jr. (1989). Temperament and cognition : relations between temperament and mental test scores. In G. A. Kohnstamm, J. E. Bates & M. K. Rothbart (Eds.), *Temperament in childhood* (pp. 263-282). West Sussex : John Wiley & Sons.
- McCune, L., & Vihman, M. M. (2001). Early phonetic and lexical development : A productivity approach. *Journal of Speech, Language, and Hearing Research*, 44(3), 670-684.
- Messinger, D. S., & Fogel, A. (1998). Give and take : The development of conventional infant gestures. *Merrill Palmer Quarterly*, 44, 566-590.
- Nathani, S., Ertmer, D. J., & Stark, R. E. (2006). Assessing vocal development in infants and toddlers. *Clinical Linguistics & Phonetics*, 20(5), 351-369.
- Nelson, K. (1973). Structure and Strategy in Learning to Talk.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38(1/2), 1-135.
- Nicely, P., Tamis-LeMonda, C. S., & Bornstein, M. H. (1999). Mothers' attuned responses to infant affect expressivity promote earlier achievement of language milestones. *Infant Behavior and Development*, 22(4), 557-568.
- Nicolich, L. M. (1977). Beyond sensorimotor intelligence : Assessment of symbolic maturity through analysis of pretend play. *Merrill-Palmer Quarterly :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23(2), 89-99.
- O'Brien, M., Johnson, J. M., & Anderson-Goetz, D. (1989). Evaluating quality in mother-infant interaction : Situational effects. *Infant Behavior and Development*, 12(4), 451-464.
- Oller, D. K., Wieman, L. A., Doyle, W. J., & Ross, C. (1976). Infant babbling and speech. *Journal of Child Language*, 3(1), 1-11.
- Owens, R. E. (2005). *Language Development : An Introduction*. Boston, MA : Allyn & Bacon.
- Paavola, L., Kunnari, S., & Moilanen, I. (2005). Maternal responsiveness and infant intentional communication : Implications for the early communicative and linguistic development. *Child : Care, Health and Development*, 31(6), 727-735.
- Paavola, L., Kunnari, S., Moilanen, I., & Lehtihalmes, M. (2005). The functions of maternal verbal responses to prelinguistic infants as predictors of early communicative and linguistic development. *First Language*, 25(2), 173-195.
- Pae, S. Y. (2003). Validity and Reliability of the

- Korean Adaptation of MCDI. *Korean Journal of Communication Disorders*, 8(2), 1-14.
- Park, S. M., & Jo, H. S. (2008). Maternal conversation strategies in mother-child interactions and infants' early vocabulary development : focused on the contextual effects. *The journal of Korea Early Childhood Education*, 15(4), 177-204.
- Pence, K. L., & Justice, L. M. (2010). 언어발달 : 이론에서 실제까지. 김성수 · 김희수 · 이상경 · 황보명(공역). 서울 : 학지사. (2008년 원저 발간).
- Pine, J. M. (1992). Maternal style at the early one-word stage : Re-evaluating the stereotype of the directive mother. *First Language*, 12(35), 169-186.
- Power, T. G. (1985). Mother- and father-infant play : A developmental analysis. *Child Development*, 56(6), 1514-1524.
- Rollins, P. R. (2003). Caregivers' contingent comments to 9-month-old infants : Relationships with later language. *Applied Psycholinguistics*, 24(2), 221-234.
- Rome-Flanders, T., & Cronk, C. (1995). A longitudinal study of infant vocalizations during mother-infant games. *Journal of Child Language*, 22, 259-259.
- Ross, G., Kagan, J., Zelazo, P., & Kotelchuck, M. (1975). Separation protest in infants in home and laboratory. *Developmental Psychology*, II, 256-257.
- Ruddy, M. G., & Bornstein, M. H. (1982). Cognitive correlates of infant attention and maternal stimulation over the first year of life. *Child Development*, 53, 183-188.
- Ruff, H. A., & Saltarelli, L. M. (1993). Exploratory play with objects : Basic cognitive processes and individual differences. *New Directions for Child and Adolescent Development*, 59, 5-16.
- Ryan, J. (1974). Early language development : Towards a communicational analysis. In M. P. M. Richards (Ed.), *The integration of a child into a social world* (pp. 185-213). Cambridge : University of Cambridge.
- Schwartz, R. G. (1988). Phonological factors in early lexical acquisition. In M. D. Smith, & L. L. John (Eds.), *The emergent lexicon : The child's development of a linguistic vocabulary*, *Developmental psychology series* (pp. 185-222). San Diego : Academic Press.
- Shin, M. K. (2006). *Maternal input and responsiveness in the vocabulary development of children at 13 and 20 months*. Unpublished master's thesis, Seoul University, Seoul, Korea.
- Smith, C. B., Adamson, L. B., & Bakeman, R. (1988). Interactional predictors of early language. *First Language*, 8(23), 143-156.
- Spencer, P. E., & Meadow Orlans, K. P. (1996). Play, language, and maternal responsiveness : A longitudinal study of deaf and hearing infants. *Child Development*, 67(6), 3176-3191.
- Tamis-LeMonda, C. S., & Bornstein, M. H. (1989). Habituation and maternal encouragement of attention in infancy as predictors of toddler language, play, and representational competence. *Child Development* 60, 738-751.
- Tamis-LeMonda, C. S., & Bornstein, M. H. (1994). Specificity in Mother-Toddler Language-Play relations across the second year. *Developmental Psychology*, 30(2), 283-292.

- Tamis-LeMonda, C. S., Bornstein, M. H., & Baumwell, L. (2001). Maternal responsiveness and children's achievement of language milestones. *Child Development, 72*(3), 748-767.
- Tomasello, M., & Farrar, M. J. (1986). Joint attention and early language. *Child Development, 57*(6), 1454-1463.
- Tomasello, M., & Todd, J. (1983). Joint attention and lexical acquisition style. *First Language, 4*(12), 197-211.
- Turner, M., & Masur, E. F. (2001). Stability and consistency in mothers' and infants' interactive styles. *Merrill-Palmer Quarterly, 47*(1), 100-120.
- Vigil, D. C., & Hwa-Froelich, D. A. (2004). Interaction styles in minority caregivers. *Communication Disorders Quarterly, 25*(3), 119-126.
- Vigil, D. C., Hodges, J., & Klee, T. (2005). Quantity and quality of parental language input to late-talking toddlers during play. *Child Language Teaching and Therapy, 21*(2), 107-122.
- Vihman, M. M., Ferguson, C. A., & Elbert, M. (1986). Phonological development from babbling to speech : Common tendencies and individual differences. *Applied Psycholinguistics, 7*(1), 3-40.
- Wetherby, A. M., & Prizant, B. M. (1989). The expression of communicative intent : Assessment guidelines. *Seminars in Speech and Language, 10*(1), 77-89.
- Wetherby, A., M., & Prizant, B. M. (2003). *Communication and symbolic behavior scales*. Baltimore : Paul H Brookes.
- Wetherby, A. M., Prizant, B. M., & Hutchinson, T. A. (1998). Communicative, social/affective, and symbolic profiles of young children with autism and pervasive developmental disorders. *American Journal of Speech-Language Pathology, 7*(2), 79-91.
- Wikström, P. (1994). The Role of Attention in Early Cognitive Development.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Columbia University, New York, USA.
- Wilcox, M. J. (1992). Enhancing initial communication skills in young children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through partner programming. *Seminars in Speech and Language, 13*(3), 194-212.
- Yoder, P. J., Warren, S. F., Kim, K., & Gazdag, G. E. (1994). Facilitating prelinguistic communication skills in young children with developmental delay II : Systematic replication and extension. *Journal of Speech and Hearing Research, 37*(4), 841-851.
- Yoder, P. J., & Warren, S. F. (1998). Maternal responsivity predicts the prelinguistic communication intervention that facilitates generalized intentional communication. *Journal of Speech, Language and Hearing Research, 41*(5), 1207-1219.

2012년 10월 31일 투고, 2013년 1월 28일 수정  
2013년 2월 6일 채택